

과대낙폭에 따른 되돌림 예상

Market Time

[시황/디지털자산]

양현경

02-2122-9213

beeb2724@imfnsec.com

[오늘의 시황] 전거래일 과대낙폭에 따른 되돌림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MSCI 한국 ETF는 3.82% 하락했으나 코스피 야간선물은 3.90% 상승해, 전일 과대낙폭을 일부 되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9월 P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음에도 미 증시의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젠슨 황 CEO가 코어위브의 재무건전성 우려를 일축하면서 AI 관련 신용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일부 완화된 점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전반의 투자심리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TSMC의 3분기 실적과 4분기 매출 전망은 첨단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줬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관심이 당장의 수요보다 AI 설비투자의 자금조달 부담과 향후 성장의 지속성에 집중돼 있음을 시사합니다. 호실적만으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따라서 금일은 장 초반 지수 반등보다 외국인 매도세의 진정 여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장중 상승 폭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7조원을 순매도한 만큼, 반도체 대형주에 매도가 지속될 경우 초반 반등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두 종목의 수급이 안정된다면 낙폭 과대에 따른 지수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 AI 투자 우려 속 코스피-코스닥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 발동했습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7.57%), 코스닥(-7.65%)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9.29%까지 하락했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코스닥도 760.82pt로 밀려났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와 근원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코어위브의 자금조달 부담과 엔트로픽의 매출 성장세 둔화가 AI 투자 회수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대형 반도체의 급락은 높아진 자본비용과 AI 투자기업의 재무 부담을 반영해 향후 수요의 지속성에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면서 낙폭이 확대됐으며, 전력기기와 반도체 기판으로도 약세가 확산됐습니다.

[수급]

- **주체별:** 코스피는 외국인 3조 7,582억원 순매도, 개인 1조 3,948억원, 기관 1조 7,120억원 순매수. 개인·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외국인 대규모 매도에 반도체 중심의 지수 하방 압력 확대. 코스닥은 외국인 2,223억원 순매수, 개인 740억원, 기관 1,608억원 순매도. 외국인 순매수에도 주요 성장주의 동반 급락과 기관 매도에 지수 약세 지속

[업종/테마]

- **대형 반도체·소부장 급락:** 코어위브의 자금조달 부담과 엔트로픽 매출 성장세 둔화에 AI 투자 수익성 우려에 삼성전자(-9.48%), SK하이닉스(-11.06%) 급락. 주성엔지니어링(-14.97%), 원익PS(-15.47%) 등 소부장으로도 매도 확산

- **전력기기 약세:**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수요 기대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효성중공업(-14.71%), HD현대일렉트릭(-10.31%) 등 큰 폭 하락

- **반도체 기판 약세:** AI 서버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 조정과 위험자산 회피 속 삼성전기(-15.36%), 대덕전자(-10.69%) 동반 급락

- **이차전지·로봇 약세:** 전일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이차전지까지 매도 압력 확산. 삼성SDI(-8.63%), LG에너지솔루션(-4.62%), 에코프로비엠(-9.10%) 하락, 레인보우로보틱스(-9.44%)도 약세

- **방어주 선별 강세:**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속 KT&G(+3.96%), LG생활건강(+1.89%) 등 방어주로 선별적 매수 유입. 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에 삼성바이오로직스(+5.50%)도 상승하며 상대적 강세 부각

[특징주]

- **에스원(+13.89%)**: 4,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 및 소각 계획 발표에 주주가치 제고 기대가 부각되며 급등
- **CJ ENM(+6.85%)**: 중동·북아프리카 24개 지역에서 서비스되는 MBC 샵하드 내 '티빙 브랜드관' 개설 소식에 콘텐츠 해외 유통 확대와 관련 매출 성장 기대 부각

[해외 증시] 젠슨황 CEO 발언에 AI 자금조달 우려 일부 완화되며 미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높은 생산자물가와 AI 기업들의 신용위험 우려에도 국채금리 하락과 젠슨 황 CEO의 발언에 다우(+1.08%), S&P500(+0.33%), 나스닥(+0.08%)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어워브의 회사채 수익률 급등이 데이터센터 투자와 GPU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 부담으로 연결되면서 반도체주에 매도 압력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장중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코어워브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자 투자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이에 코어워브(+5.94%)와 오라클(+3.00%) 상승 전환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0.88%)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경제지표는 물가 부담과 소비 증가세 둔화를 함께 보여줬습니다. 9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1.3% 상승해 예상치(0.6%)를 상회했습니다. 소매판매는 0.8% 증가해 예상치(0.3%)를 상회했지만, 휘발유 가격 급등을 제외하면 소비 둔화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장과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로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되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5.04% 부근까지 하락했습니다. 금리 하락이 주식시장 반등을 뒷받침한 가운데 제약·필수소비재 등 방어주로 순환매가 나타나 다우지수의 상대적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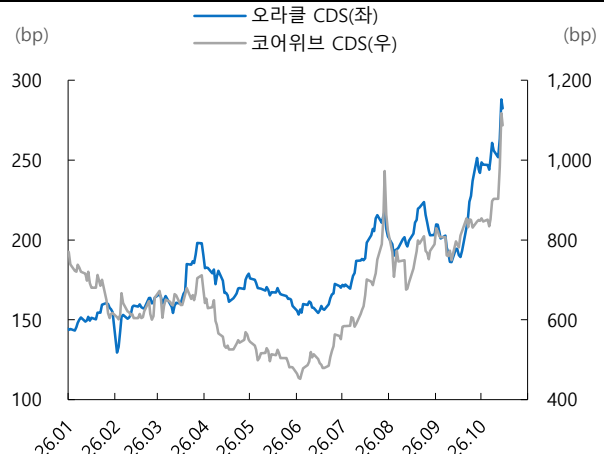
항목	종가	등락	항목	종가	등락
KOSPI	5554.22	-7.57%	DOW	52177.69	1.08%
KOSDAQ	760.82	-7.65%	NASDAQ	29935.6	+0.08%
필라델피아 반도체	11581.215	-0.88%	S&P500	7744.06	0.33%
달러-원 환율	1342.26	2.20원	달러 인덱스	102.011	-0.54pt
국고채 3년물	3.872	-1.00bp	미 국채 10년물	5.058	-12.74bp
WTI	97.97	3.03%	비트코인	82011.46	0.38%

[Key Chart] PPI 발표에도 미 국채 금리는 하락,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 확대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 영향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Key Chart] AI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부채 부담으로 신용 리스크 확대됐으나, 젠슨황 CEO 발언에 코어워브와 오라클 CDS 프리미엄은 소폭 하락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현경)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